

이와미 은광의 번영을 기원한 비석

과거 류쇼지 절이 있던 장소에는 현재 포장되지 않은 길 끝으로 고요한 숲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 길 옆에 ‘銀山大盛祈願道場碑(은산대성기원도장비)’라고 새겨진 비석 하나가 외롭게 서서 옛날 이곳의 찬란한 과거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 비석은 류쇼지 절이 다가오는 1년 동안 더 많은 은이 채굴되기를 기원하며 연례행사의식을 치렀던 3곳의 사찰 중 하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된 지 20일째 날에 열린 이 의식에서는 류쇼지 절, 고부야마다니의 사히메야마 신사, 그리고 오모리 마을에 있는 간제온지 절을 이와미 은광에서 도쿠가와 막부의 대표자 역할을 한 다이칸(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의 관리)이 방문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들 세 사찰이 선택된 이유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다이칸쇼(다이칸이 집무하는 관청)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종동(曹洞宗)의 선종 사찰인 류쇼지 절, 신토의 신사인 사히메야마 신사, 그리고 진언종(眞言宗) 사찰인 간제온지 절이 선택된 것은 다양한 출신지와 사회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많이 거주했던 이와미 은광의 종교적 다양성을 반영한 것으로도 보입니다.